ISSN 1976-0515 Vol. 7 No.4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Updat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9월 10일

제07-41호

중국·인도 산업 및 교역구조 비교

이 순 철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sclee@kiep.go.kr, Tel: 3460-1025)
양 평 섭 중국팀 부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3460-1121)

주 요 내 용

▣ 중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인도는 IT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 산업 및 교역구조 역시 변화하면서 양국 모두 전형적인 산업발전 경로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은 서비스업, 인도는 제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는 전기전자, 금속, 석유화학 등이 제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섬유 및 의류, 음식료품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금속,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섬유 및 의류 등은 점진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 수출입 구조에서 중국은 전기전자와 기계류, 인도는 운송장비, 섬유 및 의류, 금속 등이 주요 품목으로 나타나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양국 모두 석유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 품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에너지 및 원자재 경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투자면에서 중국은 금융, 교통, 화학, 서비스, 에너지 등이, 인도는 전기전자, 화학, 통신, 에너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물론 특정 분야의 경쟁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금융 등 서비스업에서도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양국 모두 산업 및 무역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금융,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요구됨.

- 향후 중국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새로운 성장분야인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인도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IT, 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물론 잠재성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등의 제조업 분야의 차별적 진출 전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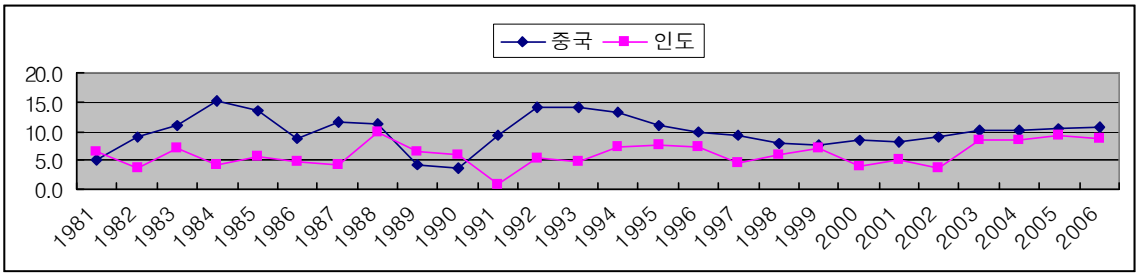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머리말

■ 중국과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30년대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1. 중국과 인도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 특히 중국과 인도는 GDP 규모에서 각각 세계 5위와 13위를, 구매력 기준 GDP 규모는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22.1%로서 19.7%인 미국보다 높음.

표 1. 중국과 인도의 세계 경제적 위상(2006년 기준)

구 분	구매력 기준(PPP) GDP		GDP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미 국	19.7	1	27.7	1
중 국	16.1	2	5.3	5
일 본	6.2	3	9.3	2
인 도	6.0	4	1.8	13
한 국	1.6	14	1.8	12

자료: IMF database.

-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하여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 경제전망기관들은 중국과 인도가 향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 이후 세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양국의 경제성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중국은 5~7%, 인도는 7~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정부도 중단기적으로 7~9%의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 인도는 서비스업의 서로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도의 경제수준 및 형태가 1996년의 중국 및 1972년의 한국과 유사하고, 중국의 경제수준은 한국의 1982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과 인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산업구조면에서 인도의 2004년은 한국의 1972년과 매우 유사하고, 중국은 한국의 1982년과 유사하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동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성장은 향후 우리와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및 인도의 산업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2. 중국·인도·한국 주요 지수 비교

구분	인도 2004	중국 1996	중국 2004	한국 1972	한국 1982
1인당 GDP (2000년 PPP기준)	2,885	2,971	5,419	3,014	5,387
GDP 대비 수출 비중	19.1	20.1	34.1	19.4	33.2
부가가치 비중					
농업	21.1	19.5	13.1	28.7	16.0
공업	27.1	47.5	46.2	26.2	37.0
서비스업	51.7	33.0	40.7	45.1	47.0

자료: UN(2006) 자료 재구성 인용.

■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6% 및 1.4%이며,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볼 때 중국은 21.4%와 15.7%, 인도는 1.7%와 1.2%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31%, 인도가 0.9%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수출입 모두 2001년 대비 2~3배, 직접투자의 경우 각각 4.1배와 2.3배의 성장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요 무역흑자국으로 양국간 경제성장 및 산업변화가 우리와의 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함.

표 3. 대중국·인도 수출입 및 직접투자 현황(2006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직접투자	비고(2001년 대비)
중국 (비중)	695 (21.4)	485 (15.7)	33.4 (31.0)	수출 2.8배, 수입 2.6배, 직접투자 4.2배 증가
인도 (비중)	55 (1.7)	36 (1.2)	1 (0.9)	수출 2.9배, 수입 2.3배, 직접투자 2.3배 증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 본고는 이러한 면에서 양국의 전체산업, 제조업, 교역 등의 구조현황 및 변화에 대하여 각 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을 가중평균한 성장기여도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 산업의 성장 전망, 양국간 경쟁가능성, 중국·인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산업구조 비교

가. 산업구조

■ 중국과 인도의 GDP 규모는 2006년 각각 2조 6,267억 달러와 8,978억 달러로 규모면에서 중국이 인도의 2.9배에 달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은 각각 10.4%, 8.9%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중국은 1조 1,580억 달러, 인도는 1,285억 달러로 중국이 인도에 비해 9배 정도 큰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중국은 13.3%, 인도는 8.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중국은 제조업 중심, 인도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발전 경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산업발전 속도 변화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중국은 1981년 농업 31.8%, 광공업 46.4%, 서비스업 21.8%에서 2006년 농업 11.8%, 광공업 48.7%, 서비스업 39.5%로 산업구성이 변화하면서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 경로를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인도는 1981년 농업 36.4%, 광공업 19.6%, 서비스업 44.0%에서 2006년 농업 18.4%, 광공업 20.4%, 서비스업 61.3%로, 중국과는 달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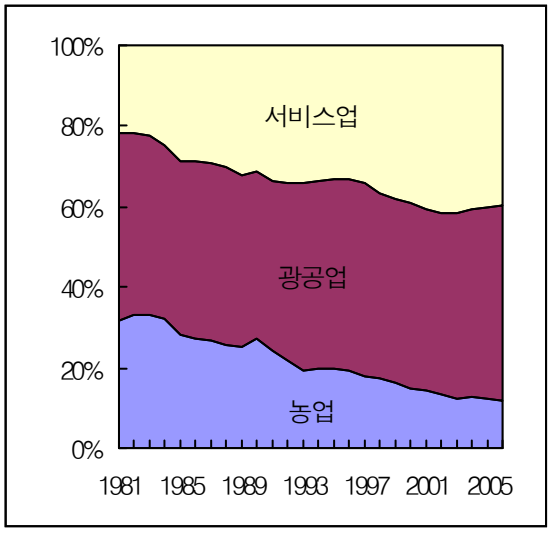
- 비록 중국과 인도 양국간 광공업 규모 차이가 매우 크지만, 그 비중 변화율에는 큰 차이 없이 단지 농업부문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분석기간 중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중국은 농업이 20%포인트 감소, 서비스업이 17.7%포인트 증가하고, 인도는 농업이 18.0%포인트 감소, 서비스업이 17.3%포인트 증가하여 양국이 거의 유사한 구조변화를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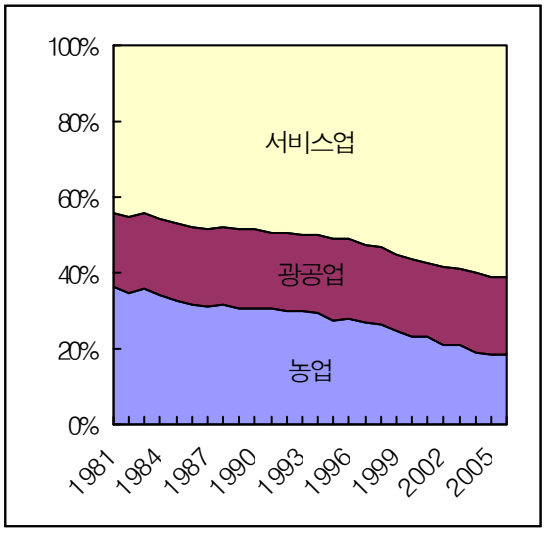
■ 한편 중국의 경우 1985년 서비스업 비중이 농업보다 더 높아져 제조업〉서비스업〉농업 순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인도의 경우 2004년부터 제조업 비중이 농업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서비스업〉제조업〉농업 순의 산업구조를 형성함.

그림 2. 산업별 GDP 비중

(중국)



(인도)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7』; Government of India.

■ 중국의 산업은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성장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의 경우 비록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초에는 농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축소되었고, 대신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GDP 성장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산업별 성장기여도의 비중을 보면, 1981년 농업 41.4%, 제조업 16.4%, 서비스업 42.2%에서 2006년 농업 5.5%, 제조업 56.7%, 서비스업 37.8%로, 농업기여도는 축소되고 제조업 기여도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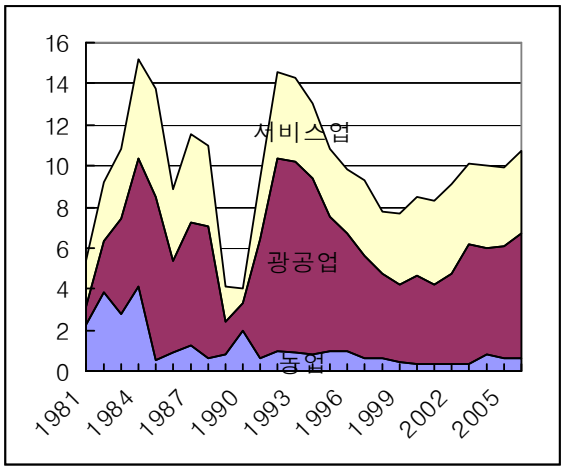
○ 감소 추세에 있던 서비스업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인도의 경우 GDP 성장에 서비스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업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산업성장을 불안정한 추세로 이끌어가고 있어, 아직도 농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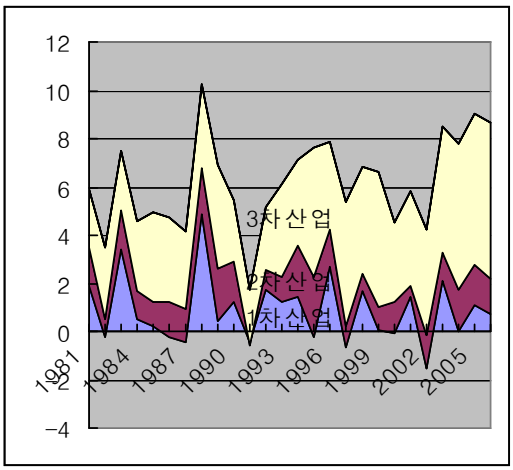
○ 인도의 산업별 성장기여도의 비중을 보면, 1981년 농업 32.8%, 제조업 26.6%, 서비스업 40.6%에서 2006년 농업 8.5%, 제조업 16.6%, 서비스업 74.9%로 농업과 제조업 기여도는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 기여도는 대폭 확대됨.

그림 3. 산업별 GDP 성장률 기여도

(중국)



(인도)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7』; Government of India.

■ 구조면에서 양국의 산업은 매우 다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농업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는 한편, 제조업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업 성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의 경우도 산업성장에서 농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성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의 경우 제조업 성장이 전체 산업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지만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한 역할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서비스업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인도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인도경제 성장에 대한 제조업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나. 제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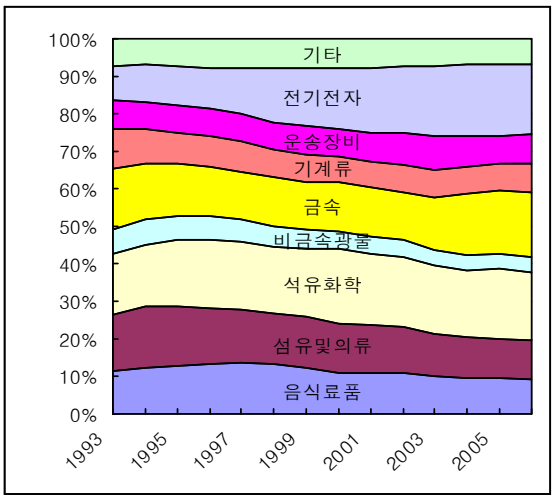
■ 규모면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금속, 전기전자가 주요 업종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는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금속이 주요 업종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주요 업종 중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 금속, 특히 전지전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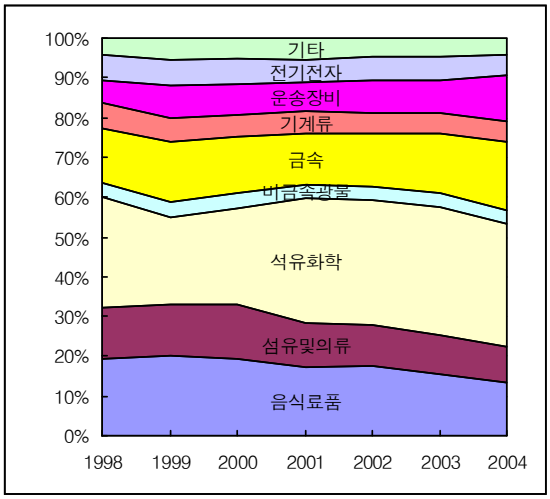
- 인도의 경우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 금속, 운송장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분야별 제조업 비중

(중국)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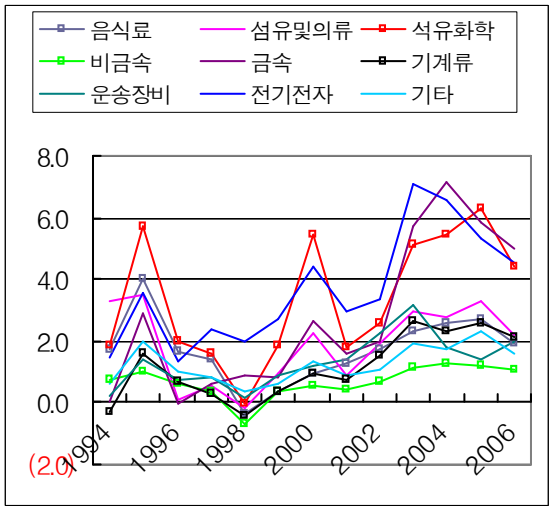
자료: 『중국 경제연감』, 각 연도; UN, Industrial Statistics Database.

■ 성장기여도면에서 중국은 금속, 석유화학, 전기전자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종도 나름대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인도의 경우 금속, 석유화학, 운송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 및 의류 등 나머지 업종은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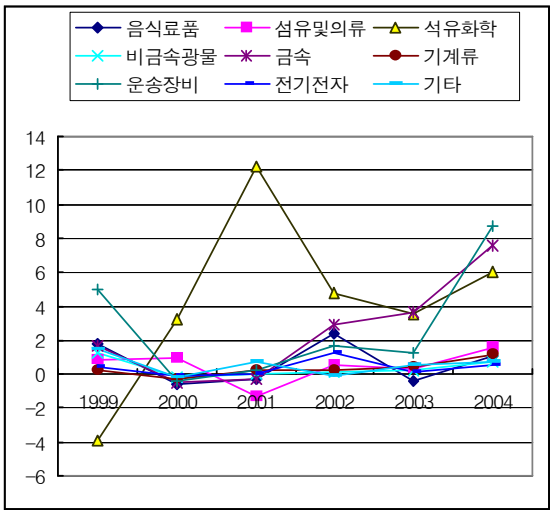
– 중국과 인도의 경우 금속과 석유화학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인바, 만일 인도의 제조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경우 이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그림 5. 분야별 제조업 성장기여도

(중국)



(인도)



자료: UN, Industrial Statistics Database.

3. 교역구조 비교

■ 교역규모에서 중국은 2006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9,696억 달러와 7,519억 달러, 인도는 각각 1,177억 달러 및 1,717억 달러이며, 세계 교역면에서 중국은 1991년의 3.8% 규모에서 2006년에는 14.4%로 세계 최대의 교역국 중 하나가 되었으나, 인도는 같은 기간 1.1%에서 2.4%로 중국보다 매우 미미한 교역규모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에서 2006년 8%로 높아진 반면, 인도는 동 기간 0.5%에서 1%로 증가하는 데 그침. 수입면에서도 같은 기간 중국은 1.8%에서 6.4%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인도는 0.6%에서 1.4%로 증가하여 양국의 대세계 교역비중에서 중국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는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

표 4. 주요국의 대세계 교역 비중

(단위: %)

연도	인도		중국		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	0.5	0.6	2.0	1.8	2.0	2.2
1996	0.6	0.7	2.7	2.5	2.4	2.7
2001	0.7	0.8	4.3	3.7	2.4	2.2
2004	0.8	1.0	6.4	5.9	2.7	2.3
2005	0.9	1.3	7.3	6.1	2.7	2.4
2006	1.0	1.4	8.0	6.4	2.7	2.5

자료: WTO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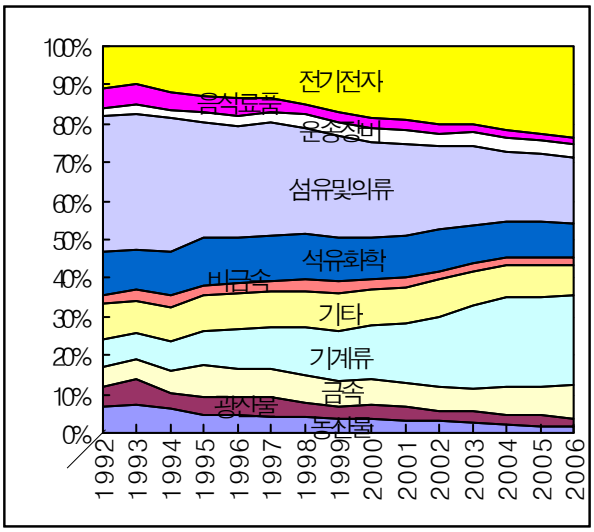
■ 수출품목 구성에서 중국은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기계류, 석유화학 등이 주요 품목이며, 인도는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광산물 등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섬유 및 의류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류의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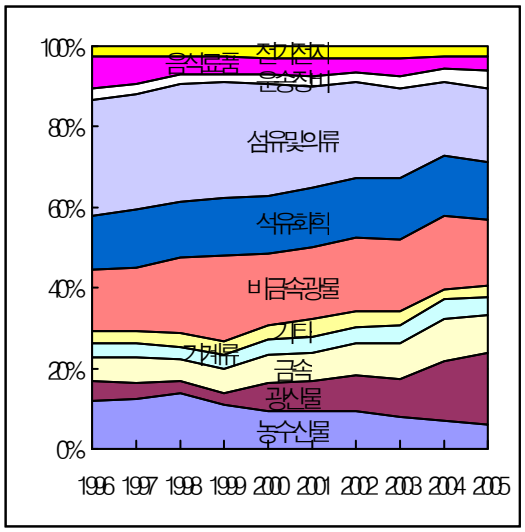
- 인도의 경우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섬유 및 의류, 음식료품, 농산물 등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금속 및 광산물 비중이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그림 6. 산업별 수출 비중

(중국)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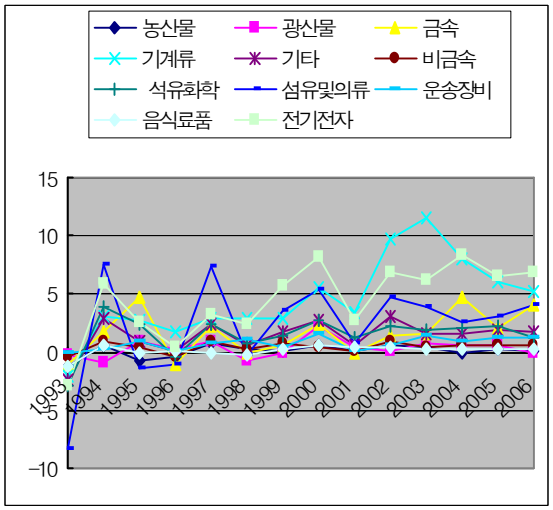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 산업별 수출기여도를 보면 중국의 경우 전기전자, 기계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섬유 및 의류, 금속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전자가 지속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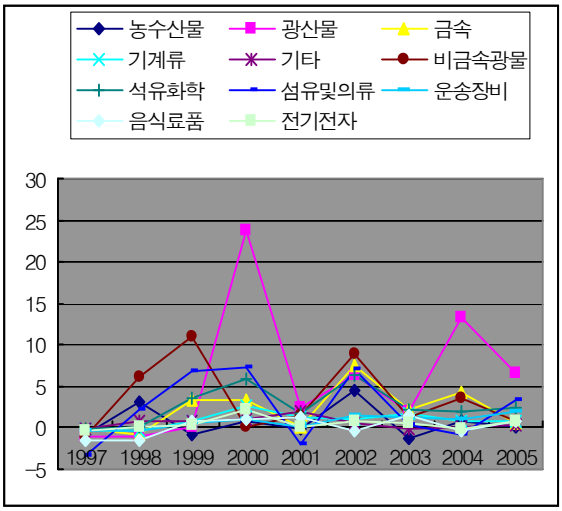
– 인도의 경우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경우 수출기여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운송장비의 수출기여도의 경우 그 규모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산업별 수출기여도

(중국)



(인도)



자료: 『중국해관통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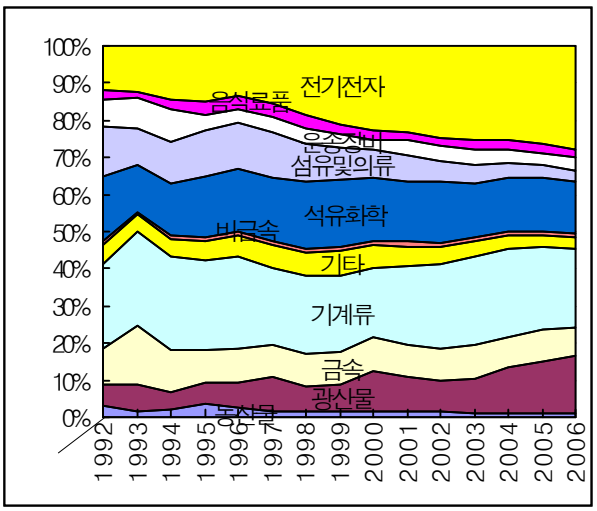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광산물이며 인도는 광산물,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기계류임.

- 중국은 전기전자, 광산물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 기계류,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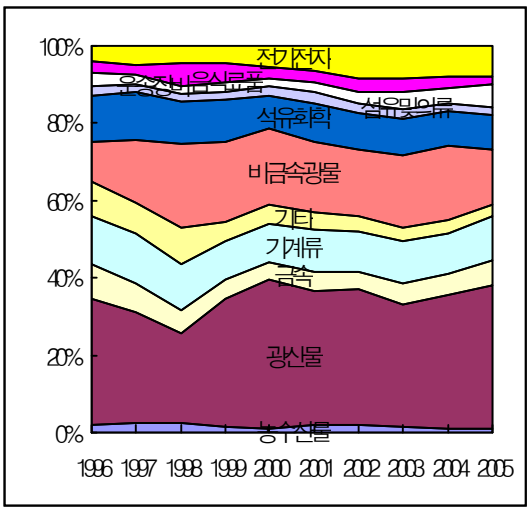
- 인도의 경우 광산물과 전기전자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금속광물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기계류 등의 품목은 변화가 없음.

그림 8. 산업별 수입 비중

(중국)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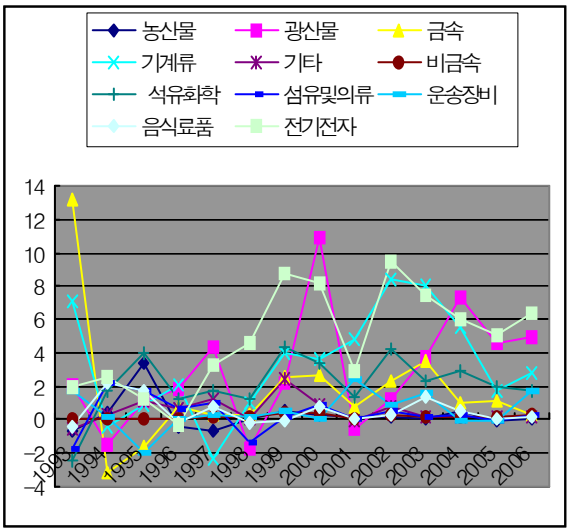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 수입기여도를 보면, 중국의 경우 전기전자, 광산물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기계류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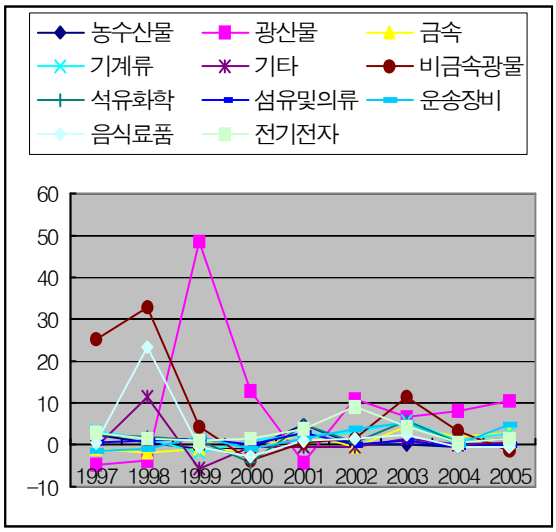
- 인도의 경우 석유 수입에 의한 광산물 수입이 수입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금속 등인 것으로 나타남. 즉 산업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수입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산업별 수입기여도

(중국)



(인도)



자료: 『중국해관통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4. 투자 및 기업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중국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도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당 투자규모도 매우 큰 것이 특징임.

- 중국의 FDI 유입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분야도 제조업에 60%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 그 규모가 87억 달러로 매우 미미하며 투자분야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중국의 경우 금융, 교통 및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 전지전자 및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FDI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FDI 유입이 양국간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양국간 전기전자, 화학 등에 대한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두 분야의 성장이 향후 양국간 경쟁 또는 보완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 중국과 인도의 FDI 유입 주요 분야

(단위: %)

중국	제조업	섬유	화학	기계	전기전자	건설	교통/유통	무역/통신	금융/부동산
5,273억 달러	63.0	4.1	5.4	4.6	14.6	1.8	3.3	1.7	16.6
인도	전기전자	서비스업	통신	교통	에너지	화학	건설	의약	음식료품
87억 달러	19.2	18.4	8.4	8.0	6.2	4.8	3.3	2.7	2.6

주: 중국은 1997~2006년 누적치 기준, 인도는 1991. 8~2007. 4 누적치 기준임.

자료: 인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중국 통계연감』, 각 연도.

■ 최근 중국과 인도에서 기업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1~2000년에서 2001~2007년 8월까지 M&A 총액은 중국이 1,136억 달러에서 3,945억 달러로 2.5배, 인도가 417억 달러에서 2,131억 달러로 4.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규모면에서 중국이 인도보다 1.8배가 더 큼.

■ 중국과 인도의 M&A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 및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는 금융〉에너지〉중간재〉공업〉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에서는 소매업〉금융〉에너지〉중간재〉통신분야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즉 중국의 경우도 이제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좀 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전형적인 IT 중심의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더 큰 소매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 인도 모두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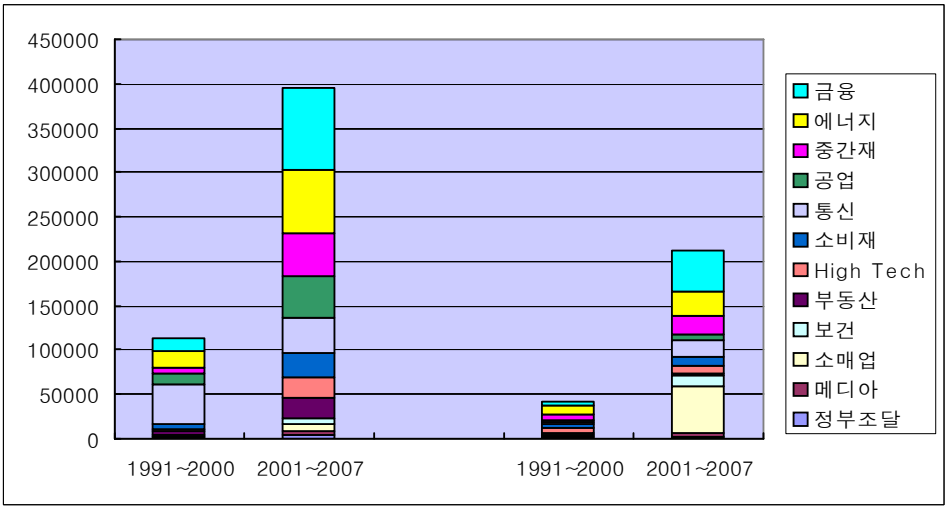
■ 한편 양국 모두 에너지에 대한 M&A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에너지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간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도에서도 제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양국간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통신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중국과 인도의 총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2007년은 2007. 8. 20일까지며, 소비재는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와 consumer staples임.
자료: Thomson ONE banker(http://banker.thomsonib.com).

5.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인도의 산업구조 평가

■ 중국과 인도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발달 과정상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중반 정도, 인도는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 정도의 경제성장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제조업에 집중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좀 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과 유사한 면이 강하지만, 인도의 경우 IT 및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을 주축으로 삼되 좀 더 서비스업으로 경제성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인도는 서비스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은 전기전자, 금속, 석유화학 등을 중심 성장 분야로 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금융, 교통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인도는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성장과 더불어 소매업을 확대하고, 제조업에서는 금속,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표 6. 중국·인도의 산업 및 무역구조 비교

구분	중국	인도	비고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 확대추세	서비스업 중심, 농업영향 여전	서비스업 중요
제조업 비중	전기전자, 금속, 석유화학 증가추세 섬유 및 의류, 음식료품 감소추세	석유화학, 금속, 운송장비 증가추세 섬유 및 의류 감소추세	금속, 운송장비 중요
제조업 성장기여도	금속, 석유화학, 전기전자	금속, 석유화학, 운송장비	금속, 석유화학 중요
수출기여도	전기전자, 기계류	광산물, 운송장비, 섬유 및 의류	상호 대칭적
수입기여도	전기전자, 광산물	광산물, 운송장비, 금속	에너지 수입 중요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교통 및 유통, 화학, 서비스	전기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업 및 화학 집중
M&A	금융-에너지-중간재-공업-통신	소매업-금융-에너지-중간재-통신	서비스업/ 에너지 경쟁

■ 향후 중국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금속 등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는 점차 비중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도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성장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운송장비, 금속 등의 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성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경제성장이 빨라질수록 에너지, 원자재 등에 대한 수요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분야에서 크게 경쟁적인 분야가 나타나지 않아 세계시장에서 향후 경쟁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세계 서비스 시장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중국과 인도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주요 산업에 대한 양국의 집중적인 성장전략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 인도는 제조업에 대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은 물론 금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에서만 아니라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도 세계의 주요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인도도 IT는 물론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과 동시에 화학, 자동차, 통신분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중국과 인도의 산업발전 경로로 미루어 보아 우리와의 투자, 교역, 에너지 및 자원확보 등에서 협력 또는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진출 전략이 요구됨.

① 양국의 서로 다른 성장과정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진출 전략의 차별화 필요

- 중국의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업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거나 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대중국 진출은 제조업보다는 금융, 유통 및 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인도 진출의 경우 금융, 소매업, IT 등의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는 절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 등의 제조업 분야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시장의 잠재성을 인식한 LG전자, 삼성,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앞서 진출한 결과, 이 기업들은 현재 일본, 유럽 등의 나라보다 전자 및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여 높은 성과를 누리고 있음.

-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융, 소매업 분야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성장에도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및 인도와의 경쟁에 대비해야 함.

② 우리 주력 성장분야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 중국과 인도 모두 금속, 석유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소매업, 에너지, 중간재 등 우리의 주력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 우리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성장을 위해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쟁적 관계를 인식하고 좀 더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에너지 및 자원 경쟁 심화에 대비

-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물론 인도도 석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매년 8% 이상 성장할 경우 인도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10년 이내에 현재 40% 수준에서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양국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다양한 원유 확보 경쟁을 해왔으나, 최근 경쟁 심화에 따른 양국의 손실을 인식하여 자원확보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경쟁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양국의 성장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중국과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고부가가치 분야 산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임.

- 또한 양국 모두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음.